2013년 04월 11일 13-7(통권 82호)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 전망 (요약)
경제 이슈: 차이나머니가 몰려온다!

퇴직연금
이슈: 노인 고용시장 확대 방안

세심록
청렴이 큰 이익이다

Book Review
2013-2014 세계 경제의 미래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증권 http://www.youfirst.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월 청년고용률 38.7%로 29년 만에 최저치 기록

–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3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 둔화세가 지속된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8개월째 하락하면서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취업자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51.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9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고용률도 58.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청년 고용은 악화 지속**: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38.7%로 지난 1984년 1월(38.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2월(38.9%)보다도 더 떨어져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 북한 위협과 대외 경제 불안이 높아 고용 시장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북한 리스크 확산으로 국내금융시장은 급락

–개성공단 잠정 중단, 미사일 발사 위협 등 북한 리스크가 점차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하락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월 28일 2.45%에서 4월 10일 현재 2.48%로 0.03%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북한 리스크가 확대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3월 28일 1,093.5원에서 4월 10일 현재 1,132.5원으로 39원 상승
- 코스피 지수도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확산되면서 3월 28일 1,993.5에서 4월 10일 1,935.6로 57.9p 하락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3/4	4/4	1/4	2/4	3/4	4/4	3/28	4/10
실물지표	GDP성장률(%)	3.4	3.4	3.4	2.8	2.4	1.5	1.5	-	-
	산업생산(%)	7.2	5.3	5.3	4.2	1.5	0.3	1.2	-9.8	-
	소비자물가(%)	4.2	4.2	4.8	3.0	2.4	2.4	1.7	1.4	1.3
	실업률(%)	3.4	3.0	3.1	3.8	3.3	3.0	2.8	4.0	3.5
	경상수지(억달러)	54.9	126.7	69.0	25.6	111.4	145.6	149.4	27.1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1	3.60	3.45	3.39	2.88	2.81	2.45	2.48
	원/달러(원)	1,083.2	1,143.9	1,085.1	1,131.3	1,152.1	1132.9	1090.3	1,112.0	1,132.5
	코스피지수(P)	2,100.7	1,825.7	1,769.6	2014.0	1,854.0	1,900.5	1,997.1	1,993.5	1,935.6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3월 28일은 2월, 4월 10일은 3월 수치임.

□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 전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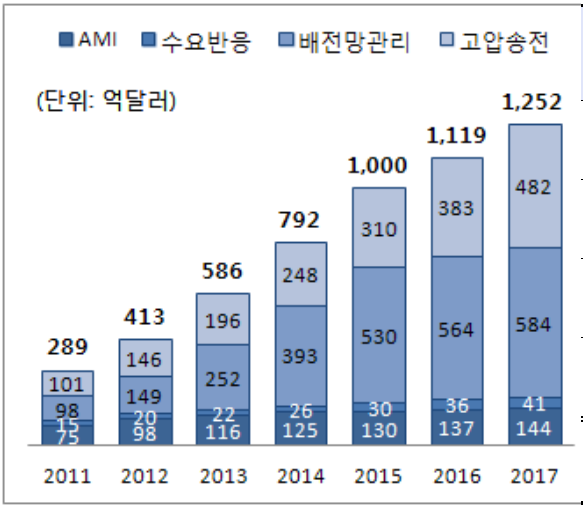
○ 스마트그리드 개요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란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
  -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른 수요 분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 전력 저장 및 재판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 전망

- (세계 시장) Frost & Sullivan은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이 2011년 289억달러에서 2017년 1,252억달러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AMI, 수요반응, 배전망 관리, 고압송전으로 분류 시 배전망 관리 및 고압송전 사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높음
- (국내 시장) 2030년까지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총 생산규모는 123조원으로 이 중 내수는 74조원, 수출은 49조원으로 추정
  - 2016 년~2020 년에는 지능형 소비자 부문이, 2021 년~2025 년에는 전기자동차 부문이, 2026 년~2030 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 >



자료: Frost & Sullivan (2012)

< 국내 스마트그리드 관련 시장 규모 >

(단위: 억원)

구분	2010~2012	2013~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지능형 전력망	360	7,200	15,480	21,600	27,360
지능형 소비자	41,236	47,340	62,550	16,125	16,125
전기 자동차	-	-	34,972	138,078	71,798
신재생 에너지	-	-	56,514	89,634	93,533
합계	41,595	54,540	169,516	265,437	208,816

자료: 지식경제부 (2010)

□ 경제 이슈: 차이나머니가 몰려온다!
- 차이나머니 규모 추정 및 시사점

○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對外 투자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대규모 대외거래 흑자 누적이 외환보유고 급증, 위안화 절상 가속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대외투자가 증가하는 등 차이나머니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1조 달러를 넘어선 후 6년만인 2012년말 현재 3.3조 달러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2012년 말(非금융업 기준) 현재 772억 달러로 지난 2005년(非금융업 기준) 123억 달러보다 약 6배 증가했고, 미국채 보유 규모도 2013년 1월말 현재 약 1.3조 달러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 차이나머니(China Money) 규모 및 운용 실태

- 차이나머니는 광의와 협의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의 차이나머니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오일머니 추정 방식에 따라 경상수지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고, 협의의 차이나머니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국부펀드 및 국제자산운용사, 해외투자가 가능한 가계자산을 운용하는 중국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내적격기관투자자(QDII)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정결과, 광의의 차이나머니는 약 2조 2,200억 달러, 협의의 차이나머니는 약 5,6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오일머니 약 1조 9,500억 달러와 비교해 보면, 각각 약 114%, 29%에 해당한다. 특히 협의의 차이나머니의 경우, 가용외환보유액의 10%만 증가하더라도 오일머니의 40% 수준에 육박한다. 한편, 추정 가능한 국내유입 차이나머니는 2012년 말 현재 전체 GDP의 1.4%인 18조원 규모이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약 16조 9,000억 원, 국내 토지매입으로는 1조 3,100억 원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국투자공사(CIC), NSSF, QDII와 같은 대표적인 차이나머니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별로 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는 금융, 에너지, 원자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셋째, 장기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주식 및 채권투자와 함께 대안투자 비중도 커지고 있다.

○ 시사점

- 향후 차이나머니의 규모가 커지고, 국내 유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의 적극적인 활용은 물론 사전적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첫째, 차이나머니의 금융시장으로의 유출입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으로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경영권 방어 전략 구축, 기술 보호 대책 마련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전략과 IT,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그린필드형 투자 및 레저, 관광형 사업 등으로 투자 유도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적극 활용도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2072-6225)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leebuh@hri.co.kr, 2072-6306)

□ 이슈: 노인 고용시장 확대 방안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고령화에 따른 65 세 이상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노인일자리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노인가구의 순 자산이 감소하면서 노인빈곤율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없이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65 세 이상 노인 고용율을 살펴보면 2002 년 30.5%에서 2012 년 30.1%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65 세 이상의 전체 노인 고용시장의 구조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노인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난 10 년간 민간 노동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 년부터 2012 년간 노인 일자리양은 총 62 만개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고용시장을 구성하는 정부고용 일자리를 제외한 순수 민간 일자리 증가는 40.2 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간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2002 년 당시의 65 세 이상 노인고용률(30.5%)을 2012 년(26.3%)과 비교해 본다면 약 4.3%p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민간고용시장의 노인일자리가 타 업종 대비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중심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단순노동 산업에 종사 비중이 전체 임금종사자의 53.1%이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농임어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85.6%에 달한다. 셋째는 정부고용시장의 일자리 중 민간 고용시장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장형 사업일자리의 고용창출력이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월 20 만 원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4 대 보험 등 근로환경의 안전망이 장년이나 청년보다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가입연령제한 때문이다. 4 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민간이나 정부 2 개의 고용시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들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근무시간제한으로 인해 정부 고용시장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지역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보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용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 고용시장의 고용량 증대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포용하여 고용창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신산업군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학력과 라이프스타일이 기존의 65 세 이전 세대와 달라 단순 노동중심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부 고용시장의 고용량 증대를 위해 시장형보다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사회공헌용 일자리에 대해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65 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민간시장 내 기업의 고용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 개선 차원에서 현 65 세 이상 임금근로자들의 소득보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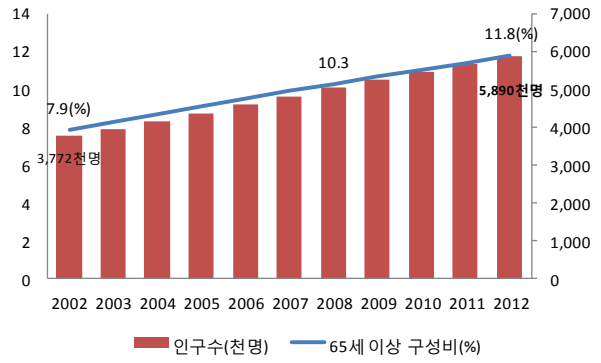
☐ 문제제기

○ 지난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고령화에 따른 65 세 이상 노인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

- 2002 년, 377 만 명(전체인구 대비 7.9%)에 불과하던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10 년만인 2012 년에 들어 212 만 명이 증가한 약 589 만 명(11.7%)에 이름
- 이와 관련해 신정부에서는 향후 5 년간 중 추진할 국정과제에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65 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그림1]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 현황('02~'12)

(단위 : 천 명, %)



자료: 통계청(2013), 연령별 인구

[표 1] 노인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구분	2012년	2013~2017년
노인 일자리 수(명)	20만 명	40만 명 (연 5만개 씩)
일자리 기간(월)	7개월	12개월
월 임금(만원)	20만 원	40만 원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국정과제 46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박근혜정부 국정과제경제활동인구조사.

○ 노인일자리 문제가 부각된 이유는 노인가구의 순 자산이 감소하면서 노인빈곤율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없이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 2006 년 대비 2012 년 60 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부동산평가액(1.5%)과 저축액(21.8%)의 증가율 보다 부채총액 증가율(39.6%)이 높기 때문
-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을 의미하는 절대빈곤율이나 중위소득 50% 미만을 의미하는 상대빈곤율에서 65 세 이상의 빈곤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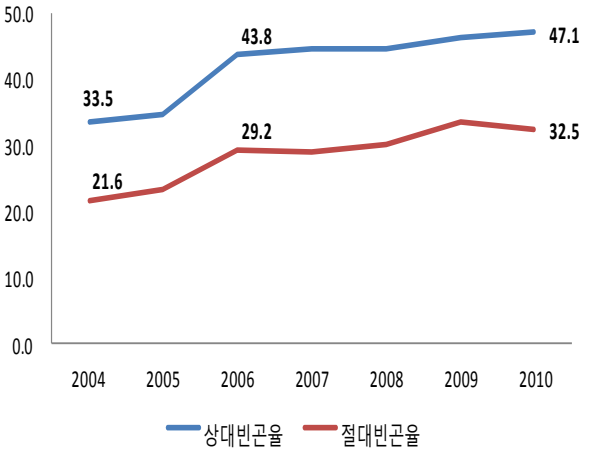
[표2]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형황('02~'12)

구분	2006년	2012년	증감(율)
총자산(만원)	29,544.3	30,456.6	912.3(3.1%)
순자산	27,055.9	26,983.8	-72.1(-0.2%)
저축총액	4,034.9	4,914.3	879.4(21.8%)
저축액	3,562.2	4,108.3	546.1(15.3%)
전월세보증금	472.7	806.0	333.3(70.5%)
부채총액	2,488.5	3,472.8	984.3(39.6%)
부채액	1,462.3	1,855.4	393.1(26.9%)
임대보증금	1,026.2	1,617.5	591.3(57.6%)
부동산평가액	25,175.1	25,542.3	367.2(1.5%)
기타자산	334.3	885.6	551.3(164.9%)

자료통계청(2006)가구주연령계층별자산현황가계자산조사;
통계청(2012)가구주연령계층별자산및부채현황가계금융복지조사
주:2006년은65세이상,2012년은60세이상자료를사용

[그림2]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추이('04~'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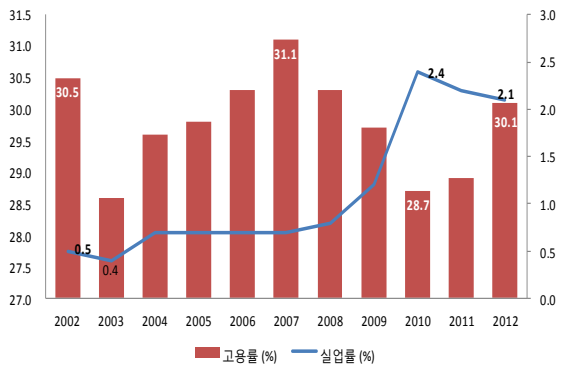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2)노인일자리통계동향재인용
주:가처분소득기준,2006년이후1인가구포함

○ **그런데 현 65 세 이상 노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2 년 30.5%에서 2012 년 30.1%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65 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12 년 30.5%에서 2003 년 급격히 상승했다가 2008 년 이후 다시 낮아지고 2010 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W 형의 모습을 보임
- 그 이유는 2004 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면서 노인 고용률이 증가되었다가 2007 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한 후,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
- 그러나 2002 년 0.5%('02)에 불과했던 실업률은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 년 2.4%에 이른 후 2012 년까지 2.1%를 유지하는 등(6 천명('02) → 38 천명('12)) 여전히 높은 상황

[그림3] 65세 이상 고용율과 실업률('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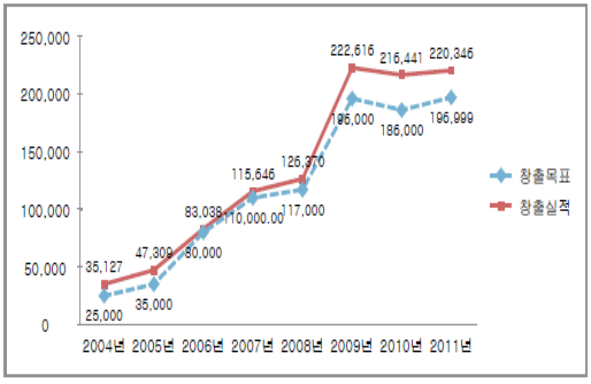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통계청(2013)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4]노인일자리사업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11)

(단위: 명)



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사업정보시스템Database,2011.

○ **본고에서는 65 세 이상의 전체 노인 고용시장의 구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노인고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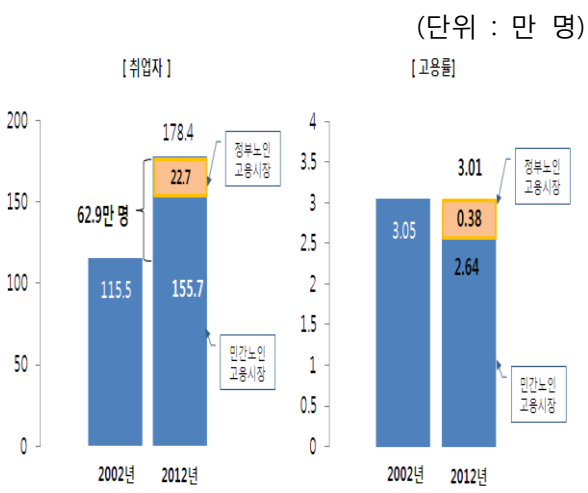
- 노인 고용시장의 구조분석은 정부와 민간으로 2 원화된 시장를 기반으로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망 차원을 포함함

☐ **노인 고용시장의 문제점**

○ **(전체 시장) 지난 10 년간(2002 년~2012 년) 민간 노동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력은 감소한 반면 정부 고용시장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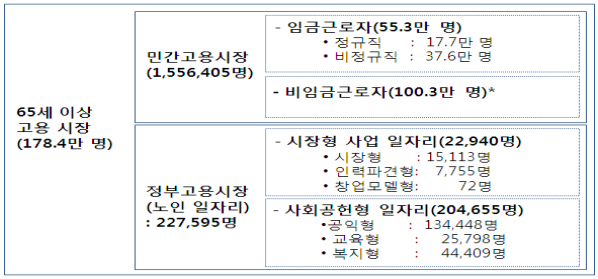
- 지난 10 년간 전체 노인고용시장의 고용량은 62 만개가 증가하였으나 2004 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22.7 만 명 제외 시, 순고용 증가량은 40.2 만 명에 그침
  ·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을 제외시 2012 년 기준 65 세 이상 노인고용률은 2002 년 30.5%보다 4.3%p 낮은 26.3%로 추정
- 민간 고용시장 취업자 중 64.5%인 약 100.3 만 명은 자영업자 및 무급 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이고 나머지 35.5%인 55.3 만 명이 임금금로자로서 구성, 정규직은 17.7 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취업자 약 22.7 만 명 중 89.9%에 해당하는 20.4 만 명은 공익·교육·복지 등 사회공헌형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2.3 만 명이 시장형에 종사

[그림5] 65세 이상 취업자 수 및 고용율('02 vs.'12)



자료: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6] 65세 이상 고용시장 구성('12)



자료: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박경하(2013),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관련자료 부재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노인일자리 사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65세 이상 취업자는 2012년 연간자료,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 자료는 2012년 8월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 통계자료는 2012년 10월 기준 자료 활용. 단 지방자치제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통계 부재로 제외

○ **(민간 시장) 타 업종 대비 저임금을 받는 단순 노동중심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및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 53.1%가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임금 수준은 시급 당 9,500 원 선인 것으로 파악됨
- 전체 비임금근로자 961,903 명('10) 중 72%가 농임어업에, 9.6%가 도매 및 소매업에, 3.7%가 숙박 및 음식점 업에 종사하는 등 3 대 업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85.6%에 달함

[표3] 65세 이상 비임금근로자 다수 상위10개 산업('10)

산업별	근로자수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無)	자영업자 (고용원有)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961,903	601,756	66,283	293,864
1. 농업, 임업 및 어업	694,212	433,974	8,564	251,674
2. 도매 및 소매업	92,808	64,117	12,176	16,515
3. 숙박 및 음식점업	36,251	19,436	8,065	8,750
4. 운수업	30,313	27,139	2,812	362
5. 제조업	27,590	11,950	11,242	4,398
6. 협회/기타 개인서비스업	20,980	14,314	2,379	4,287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909	11,451	3,545	1,913
8. 건설업	9,372	5,211	3,560	601
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430	2,267	4,781	382
10.사업시설관리/지원	5,833	2,638	2,035	1,160

자료: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성, 산업 및 연령,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60세 이상).

[표4]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근로조건('11)

산업별	근로자수	임금 근로자		
		총근로 시간(월)	월급여 총액(원)	시급 (원)
전체	392,388	195.3	1,855,315	9,500
1. 제조업	71,419	199.6	2,075,449	10,398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225	235.0	1,288,311	5,482
3. 사업시설관리/지원업	65,907	195.1	1,484,196	7,607
4. 운수업	38,683	184.5	1,657,091	8,982
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8,727	160.6	1,620,454	10,090
6. 건설업	23,075	178.0	2,202,641	12,374
7. 도매 및 소매업	20,025	187.7	2,382,202	12,692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7,935	168.0	2,981,922	17,750
9. 교육서비스업	16,848	172.9	3,439,570	19,893
10. 협회 등 개인서비스업	13,372	173.8	1,501,585	8,640

자료: 통계청(20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60세 이상).

○ **(정부 시장) 민간고용시장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장형 사업일자리의 고용창출력이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월 20 만 원 정도로 열악**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용 일자리와 민간 노인고용시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등 시장형 일자리 사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인원의 10.1%에 불과
- 정부의 노인일자리 임금수준은 월 40 시간 정도의 근무일수에 약 20 만원 수준으로 지난 5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일자리 유형 중 인력파견형이 타 일자리 유형보다 임금이 약 3 배 정도 높은 수준

[표5]노인일자리 유형과 창출 실적('04 vs.'12)

구분	세부 업무내용	일자리 실적	
		2004년	2012.10
전체		35,127	227,595
공익형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현수막 재활용, 폐 의약품회수 등	28,373	134,376
교육형	- 1-3세대 강사파견, 노-노교육, 숲생태 해설, 문화재해설 등	3,800	25,798
복지형	- 노-노케어, 노인학대 예방, 장애인돌봄 및 청소년보호 등	-	44,409
시장형	- (일자리 지속형)공동작업장운영, 특산물제작/판매사업 등	1,748	15,113
	- (수익창출형) 식품제조 및 판매, 아파트/지하철택배 등		
인력파견형	-시험감독,가정도우미,지역일손도우미등	1,206	7,755
창업모델	- 떡방, 콩나물 등 공동 운영		72

자료: 노인인력개발원(2013), 노인일자리 유형, 박경하(2013),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표6> 노인일자리 전체 평균 급여 변화 추이(08~'12)

(단위: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206,259	217,505	223,233	225,272	220,995
공익형	190,085	199,265	191,036	191,357	193,425
교육형	192,507	193,966	193,253	215,367	193,617
복지형	192,865	193,735	193,120	193,130	193,343
시장형	182,731	196,786	221,838	236,486	246,202
인력파견형	500,962	566,674	612,141	573,228	609,306
창업모델형	247,815	241,614	306,326	367,130	331,799

자료: 박경하(2013),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근로 환경) 연령과 근무시간 등 가입 제한조건으로 인해 4 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근로환경의 안전망이 장년이나 청년보다 취약한 상황**

-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64 세까지 가입이 되어 65 세 이상 민간고용시장 임금근로자와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등이 어려운 상황
- 더불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종사자는 근로시간이 월 40 시간 정도여서 직장가입조건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써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만을 적용받음

[표7] 4대 보험 가입조건

구 분	가입 조건
국민연금	-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의 18~60세 미만 사용자/근로자 - 지역 : 18세~60세 미만인 자
건강보험	- 직장 : 1인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제외 등) - 지역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제외인 사람
고용보험	- 사업장: 65세 미만(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예외) 근로자 일용 및 시간제근로자, 60세 이후 고용자(64세까지)
산재보험	-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건간보험공단(2013), 근로복지공단(2013), 고용노동부(2011)

[표8] 복지부 노인일자리 산재보험 수혜 현황('11)

(단위: 개)

구 분	유형	반도	산재보험 수여여부	
			급 여	비급여
전 체	-	97	81	16
공익형	- 골졸, 염좌, 찰과상, 타박상, 기타(교통사고 등)	68	42	9
교육형	- 골졸, 기타(교통사고 등)	2	-	2
복지형	- 골졸, 염좌, 찰과상, 타박상, 기타(교통사고 등)	21	17	4
시장형	- 염좌, 타박상, 기타(교통사고 등)	6	5	1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 노인일자리사업 DB

주: 산재보험 신청 중인 사례도 산재보험을 수혜 받는 것으로 산정

☐ **향후 노인고용시장의 정책 방향**

○ **(민간 고용시장의 고용량 증대) 베이비붐 세대를 포용하여 고용창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 산업군 개발이 필요**

- 민간고용시장에 속한 현재 65 세 이상 임금근로자들은 한국전쟁 이전 세대로, 고령화로 인해 65 세에 곧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와는 교육수준 등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차별적임
- 고용창출력이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부동산 등 주로 단순 노동 업무 중심의 업종에서 이전세대와 차별적인 베이비붐 세대를 노동인력으로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현재 65 세 이상, 민간 고용시장에서 고용창출 비중이 낮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 업 등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기회를 발굴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발굴이 요청됨

○ **(정부 고용시장의 고용량 증대) 경쟁력이 취약한 시장형 일자리보다는 사회공헌용 일자리에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 65 세 이상 민간 고용시장의 고용 창출력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규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는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전망
  · 복지부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65 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민간 시장 내 기업의 고용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
- 오히려 현재 20 만 명에 머물러 있는 사회공헌용 일자리의 고용 양을 증대시켜 민간시장과 차별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사회서비스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 국정과제(수당 2 배와 일자리 수 20 만개)에서 일자리 수를 약간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늘려 노인 일자리 종사자들의 희망 월 급여 수준 약 65 만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

○ **(고용의 질 개선) 65 세 이상 임금근로자들의 소득보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과거에 비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100 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순자산이 감소하는 등 65 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고용보험 등 소득보장 장치가 65 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고, 건강보험도 근로시간 부족으로 인해 직장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65 세 미만 임금 근로자들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 (02-380-8149, cslee@kihasa.re.kr)

□ 洗 心 錄

□ 청렴이 큰 이익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하경제란 불법 또는 탈법적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지하경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정경유착에 따른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부정부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골칫거리였다. 다산 정약용은 지방관리가 참고해야 할 행정의 지침서로서 『목민심서』를 남겼는데, 청렴을 강조하고 청탁을 물리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율기(律己) 6조 가운데 하나인 청심(淸心) 부분을 보면,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느끼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이 결국 이익이 됨을 알게 된다"(염자안염 지자이염, 廉者安廉 知者利廉)는 글귀가 있다. 청렴하면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린 고건 총리의 부친은 막 행정고시에 합격한 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했다고 한다. 돈 받지 마라, 줄 서지 마라, 술 많이 먹지 마라. 이 세 가지 훈계를 잘 지킨 덕분에 고건 씨는 장관 3번, 서울시장 1번, 국회의원 1번, 총리 2번을 역임했다. 결국 청렴하면 승진하고, 출세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자잘한 선물이나 돈에 눈이 멀어 부정에 연루된다면 승진도 안 되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는 비단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 승진, 판매, 납품, 계약 등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나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청렴이 큰 이익'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한번 더 되새겨야 할 때이다.

行不由徑(행불유경)

길을 가는 데 지름길이나 뒤안길을 취하지 않고 큰길로 감

일시적 이익이나 공명심 때문에 정도를 버리고 편법으로 처신하지 말라는 뜻

– 논어(論語) –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제목 : 2013-2014 세계 경제의 미래**

- **저자: 해리 덴트, 로드니 존슨**

  . 해리 덴트: 경제예측 연구소인 HS덴트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소비 성향의 변화를 토대로 한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의 최고 권위자.
  . 로드니 존슨: 경제예측 연구소인 HS덴트의 사장이자 투자자문회사인 HS덴트투자관리의 사장. 경제 논평가.

☐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버블'과 '고령화'

-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는 소비와 신용시장을 확대시켜 왔으나, 이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신용 버블이 붕괴됨
- 여전히 전세계 GDP의 65%는 선진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기는 어려움
- CRB 상품지수는 약 30년마다 가격 붕괴: 중국의 과잉생산과 전 세계적인 구매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

○ 인구 추이가 경제의 핵심 동력: 혼돈 속에서도 소비는 지속

- 소비성향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변화에 의존하며,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동기의 변화가 경기 변화의 핵심
- 80년 주기설: 봄 26년(1942~1968년), 여름 14년(1969~1982년), 가을 26년(1983~2007년), 겨울 14년(2008년~)

○ 대저택에서 단칸방으로: 유례없는 부동산 버블과 신용버블

- 과잉 부양책의 해악: 2008년 당시 미국의 민간부채 42조 달러 중 22조 달러가 2000년 이후 발생
- 1983년에서 2007년까지의 위대한 호황은 베이비부머들의 생애 주기와, 그들이 젊은 시절에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혁신기술들에 의한 것임

- 금리인하로 2000년대 초반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베이비부머들이 1999~2003년 사이에 주택 및 소비 규모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임

○ **부채 축소와 디플레이션: 통화 확대를 통한 단기 버블은 지속 불가능**

- 향후 미국 정부 예산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부 자산매각, 부처 폐쇄, 고용 동결, 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으로 전환
- 연방정부 재정적자 확대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연준의 돈풀기(=인플레 유도)는 실패
- 이제 미국 최대의 소비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부채를 줄이고 퇴직을 위해 저축을 늘리는 시점에 도달

○ **살아나지 않는 고용시장과 주택시장: 늙어가고 있는 미국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부양책은 결국은 실패**

- 실업률 하락은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
- 2012년 4월 현재 미국의 전체 압류주택이 370만채에 달하는 데 비해 매매량은 7만 6,384채로 약 43배가 재고

○ **마지막 버블: 중국의 과잉생산능력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것**

-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세계은행과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이미 60~65%에 도달
- GDP 성장률과 도시화 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도시화 비율이 70~80% 수준이 되면 경제성장률은 정점에 달함
-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추이인데, 중국의 인구는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2025년에 하락 예상
- 중국 경제는 자본재 투자와 이로 인한 과잉 팽창으로 2013년에 이미 경기 주기의 장기고점에 도달
- 수년 내 중국은 과잉 자본투자 문제의 해소와 인구구조의 하강이 만날 것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사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